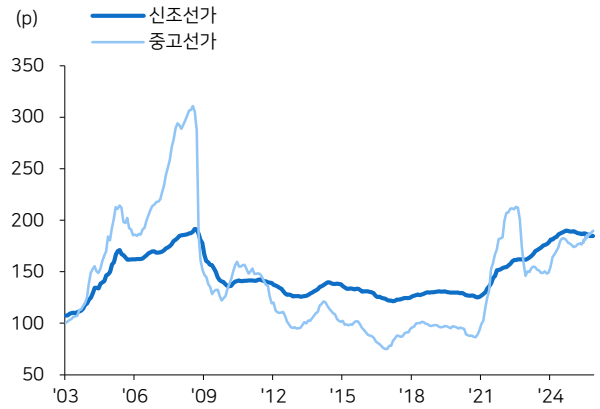
2025. 11. 21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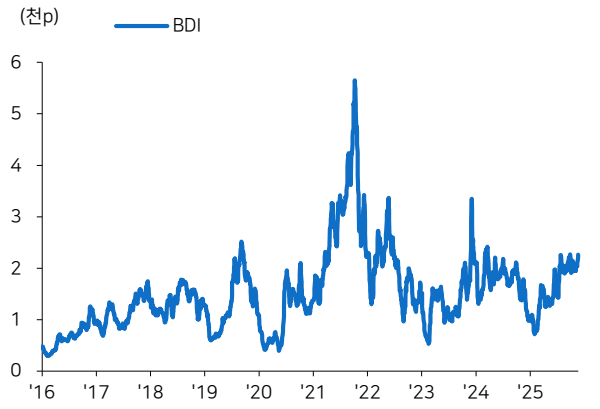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9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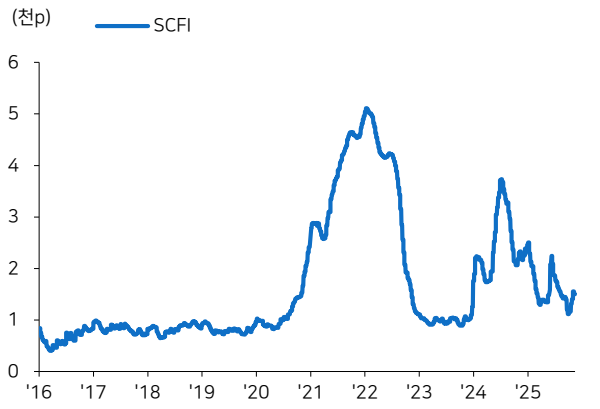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79.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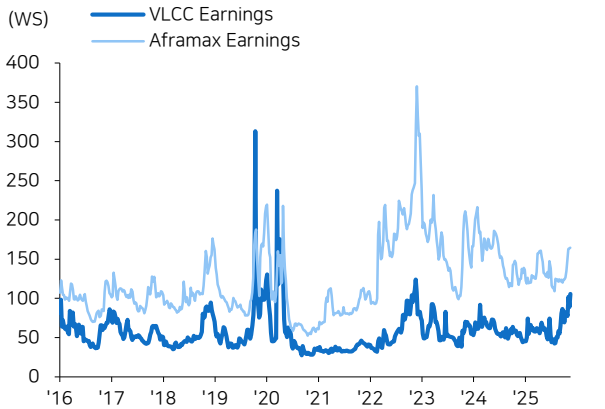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60.0p (+4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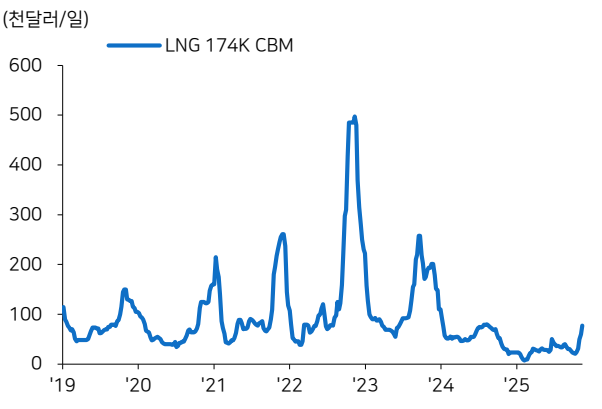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51.4p (-43.7p WoW)



VLCC Spot Rate 105.7WS (+16.7p WoW)



LNG Spot 운임 77.5천달러 (+17.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중공업·SIMA, 페루 해군 다목적 호위함 건조 본격 돌입 — **더구루**

HD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SIMA Perú S.A.)와 강재절단식을 열고 3,400톤급 호위함 공동 건조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시마조선소에서 건조될 호위함은 HD현대중공업이 작년 4월 수주한 약 6,406억원 규모의 페루 함정 4척 중 하나로, 2029년 인도할 계획으로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페루 조선소의 호위함 5척, 원해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고, 시마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개발 및 건조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https://buly.kr/4mdogQw)

한화오션 美 법인, 자산 1조 '실탄' 마련…'제2의 필리조선소' 확보 나서나 — **헤럴드경제**

한화오션USA홀딩스 자산이 1조488억원으로 늘며 미국 내 조선·해운 투자 확대를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회사는 유상증자 재원을 활용해 미국 함정 사업과 현지 생산거점 확보(574억), 선박 발주와 법인 운영(889억원), 미국 현지 투자 및 자회사 관리(144억원)등에 자금을 투입해왔으며, 이에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 가능성이 전해짐. 한편 HD현대중공업도 미국 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헌팅턴 잉걸스와의 JV 형태의 법인 설립 등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5JO5ctv)

Samsung Heavy orderbook swells to $6.74bn after Evergreen order — **TradeWinds**

삼성중공업이 1조9,200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해 2025년 누적 수주액이 9조9,000억원에 이르렀다고 보도됨. 발주처는 '아시아 지역 선주'라고만 공시됐으나 대만 선사 Evergreen Marine일 가능성이 높으며, 건조 계약은 11월 19일에 개시해 2029년 11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또한 이달 초 발표된 삼성중공업의 원유운반선 2척(1억9,900만달러) 건조 계약도 당시 발주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말레이시아 선주 AET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https://buly.kr/uV96f7)

ExxonMobil lifts force majeure at Rovuma LNG project in Mozambique — **Upstream**

ExxonMobil이 Mozambique Rovuma LNG 사업의 불가항력을 해제하며 2026년 FID와 2030년 첫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됨. Rovuma LNG 1단계는 Mozambique 해상 Area 4의 약 850억입방피트 규모 회수 가능 가스를 기반으로, 연 1,800만톤의 LNG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짐. 2021년 Afungi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이 발생하자 Mozambique LNG와 Rovuma LNG는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Mozambique LNG의 불가항력은 올해 10월 해제됐다고 전해짐. (https://buly.kr/BTQbxgd)

Mozambique extends TotalEnergies LNG concession — **Upstream**

Mozambique 정부가 불가항력 기간 동안의 지연을 보전하기 위해 TotalEnergies의 Mozambique LNG 운영권을 4.5년 연장했다고 보도됨. TotalEnergies는 당초 최대 10년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알려짐. 수정 예산은 불가항력으로 45억달러 증가해 감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정부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으로 전해짐. 모든 절차가 완만히 진행될 경우 프로젝트는 2029년 또는 2030년에 가동될 수 있다고 알려짐. (https://buly.kr/9XMHAoY)

삼성중공업, 독일 얀슈츠 자율항해 시스템 도입 검토 — **더구루**

삼성중공업이 독일 Anschütz 본사를 방문해 테스트 선박을 비롯한 주요 시설, 출시 예정인 'Anschütz Autonomics'의 성능과 공급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보도됨. 해당 시스템은 카메라·센서 기반 상황 인식과 정밀 제어 기능을 갖춰 악천후 속 정박, 충돌 회피, 육상 원격 제어 운용까지 가능하다고 전해짐. 삼성중공업은 2019년 독자적 AI 자율운항시스템(SAS)을 개발한 바 있으며, Anschütz 솔루션을 검토해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FAeWYTK)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